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1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23일 (음력 4월 19일) 목요일

‘한빛원전 수동정지’ 전남 정치권 규탄 잇따라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최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태와 관련해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태만을 규탄했다.

최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태와 관련해 전남지역 정치권에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2일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태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실점검

전남도의회 기자회견서 규탄 성명 발표 “대형사고 위험 초래 원안위 직무태만” 정의당 전남 “포괄적 안전대책 수립을”

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관련법과 운영을 소홀히 한 한빛원전 관련자를 원자력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는 정기검사를 마친 다음 재가동 하루만에 운전탑이 제어봉의 위치와 실제 위치가 맞지 않은 것을 발견했고 계속제어탑에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자의 조작실수로 인해 열출력이 급상승했다고 한빛원전 자체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원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즉각 공개하라”면서 “정부는 원자위가 독점하고 있는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을 지자체에도 부여하도록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한

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위원회 직무태만을 강력히 규탄하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세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이번 사고는 그동안 한빛원전제1번 빈번한 화재사고와 원전 정지횟수가 점점 늘어나 도민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면서 “전남도를 대표하는 도의회 차원에서 원자력위원회에 강력한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전남도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빛 원전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포괄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현재 행정소송중인 한빛 원전 3.4호기에 대한 국민감사도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불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노 전 대통령의 10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제 스로 10번 추도식을 할상하는 날로 생각하고 준비해 왔지만 어려웠다. 탈상은 다시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이 사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스심 재판 일정과 겹쳤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미움이 아프고 속이 상한다. 하지만 아껴면 이것도 저가 지켜내야 할 운명 같은 것’이라며 ‘조금 늦더라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땀땀하고 당당하게 대통령님 찾아보려 한다. 뒤로 미룬 저의 탈상은 그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지사는 ‘하찮지만 마음은 놓는다. 인화정전 충남도지사 등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사진 = 뉴스시스



김영록 전남지사 “노무현정신 계승, 행복시대 열겠다”

“사람 사는 세상, 전남도” 다짐

김영록 전남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 사는 세상, 전남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글을 통해 “비통한 심정으로 떠나보낸 지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외침은 아직도 우리 가슴 깊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던 평화로운 한반도의 꿈이 한층 가까워 오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반도는 상생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 민족의 화합과 번영의 그날이 더욱 빨리 오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시민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해져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시민이 모여 훗날 혁명을 이뤘다”



며 “그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뿌린 균형발전의 씨앗은 나주를 비롯한 전국 혁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지방분권을 향한 정책의 흐름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농수산업에 비롯해 문화·체육, 에너지·자원 등 여러 방면으로 남북 교류에 앞장서고, 도민제일주의로 더불어 잘사는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본보 창간 12주년

기념행사 5월 31일

제7회 보성군 농협장기 게이트볼대회 성료

제7회 보성군농협장기 게이트볼대회가 22일 보성군 게이트볼전용구장에서 개최되었다.

보성군농협운영협의회(의장 문병완 보성농협조합장)가 주최하고 보성군 게이트볼협회(회장 김석봉)가 주관한 이 대회에는 총 24개팀 200명의 농촌 어르신들이 출전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었다.

본 대회는 보성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농협 구원을 위해 2013년도에 시작되어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도 대회는 문병완 의장 등 농협조합장과 농협보성군 서희수 지부장, 유영관 보성부군수, 신경균 보성군의회 의장, 임영수 전남도의회 의원 등 총 200여명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문병완 의장은 대회사에서 “어르신들이 힘찬 구령 소리로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 다시 젊음이 돌아오는 것 같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의 기쁨을 마련하고, 더욱 풍요롭고 활기차게 생활해 나가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 기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 금지 법안이 입법화 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